

주요 지역별 해외사업 추진전략

1. 추진여건

- 경기위축에 따른 대외여건·재무여건 악화로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
-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해외사업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을 방안 강구

2. 기본방향

- (수익성) 사업성이 검증되어 고신인도·저리스크린 우량수익 사업 선별
- (저부담) 재무 부담이 있는 투자방식 지양, 단기사업은 500억 원 내 투자
- (청정e) 청정e 중심으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다변화 필요

3. 추진전략

- (단기) LNG 발전소 건설, MG(마이크로그리드) 사업
 - (동남아시아) 우수한 수익성의 베트남 K LNG 발전소 건설사업('24년)
 - 사전자격 검증제 참여를 통해 투자세를 20% 감면 가능하여 수익성 강화
 - (오세아니아) 저부담·청정e 확대를 위한 팔라우 MG 구축 사업 진출('24년)
 - 장기저리의 정부 ODA자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금융경쟁력 확보
 - MG 분야 국내 사업경험 및 우수한 기술력을 오세아니아 지역에 전파
- (중장기) 암모니아 채집 사업, HVDC건설
 - (아메리카) 수익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칠레 암모니아 사업 진출('29년)
 - 잔여채집량이 우수하며 배타적 사업권(10년)이 보장되어 장기안정성 확보
 - 태평양을 통한 최적의 대규모 운송으로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 가능
 - (중동)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우디 HVDC건설 사업 참여('28년)
 - NET ZERO 정책 발효에 따른 발전믹스 재편 초기단계로 사업성장 전망
 - UAE 해저 송전망 사업 경험을 앞세워 입찰 참여 시 주도적 위치 선점

4. 후속조치

- 팔라우 MG사업 진출 관련 MG사업부 현원 5명으로 조정 요청(→ 조직실)

고유번호

4OR01090

점수